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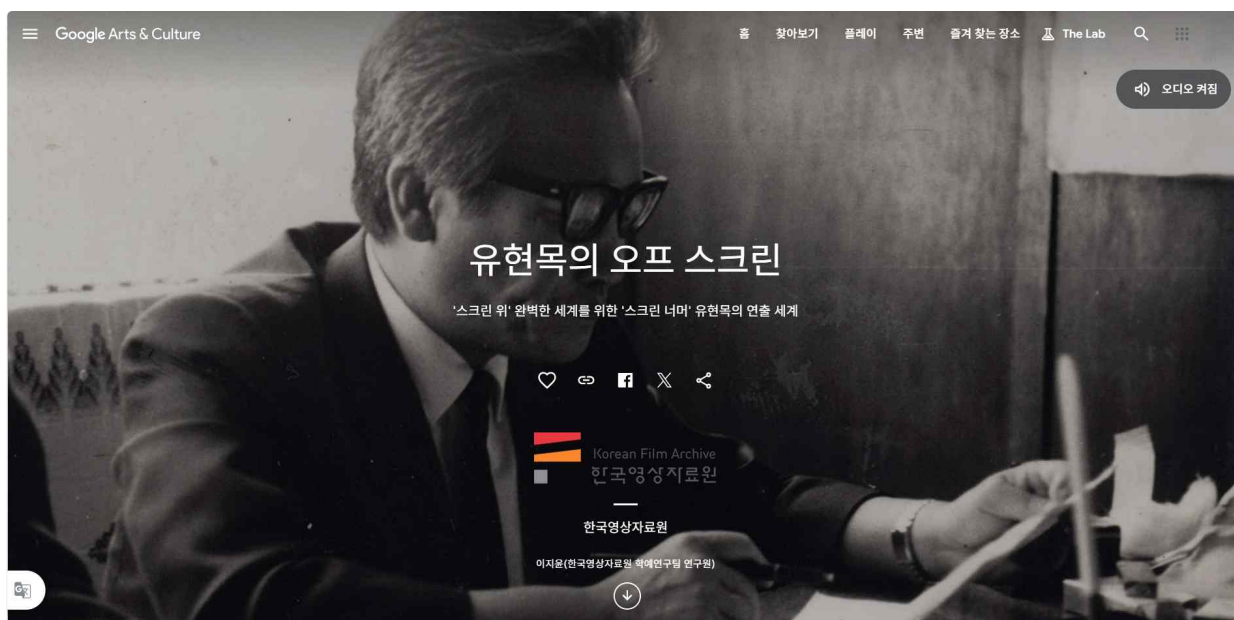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유현목 탄생 100주년: 미공개 <오발탄> 육필 원고부터 직접 그린 콘티까지 연출 자료 공개

한국영상자료원, KMDb와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온라인 전시 및 컬렉션
15일 동시 공개

시나리오·콘티·제작자료 등 유현목 감독의 연출 기록 165점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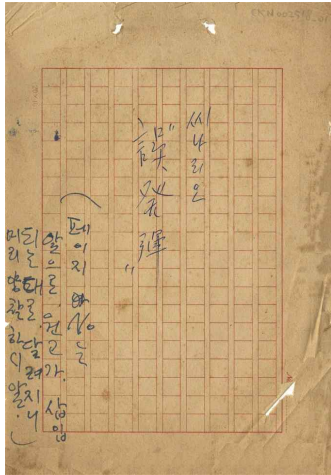
▲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전시 '유현목의 오프 스크린' 메인 이미지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유현목 감독(兪賢穆, 1925-2009)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과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 & Culture) 온라인 전시를 오는 12월 15일 동시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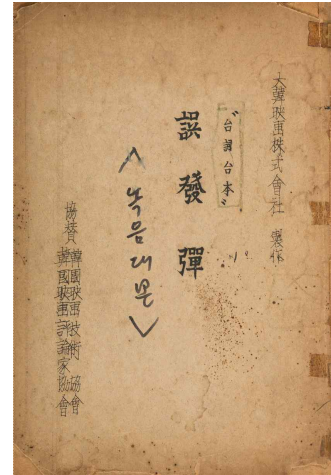
■ 유현목 감독의 창작 과정이 담긴 희귀 연출 자료 165점 최초 공개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은 12월 15일부터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로, 2016년 고(故) 유현목 감독의 부인 박근자 작가가 영상자료원에 기증한 연출 관련 기록이다. 자료는 그가 연출한 극영화에 관한 ▲시나리오(67점), ▲콘티(25점), ▲제작실무자료(69점), ▲작품 해설집(4점) 등 총 16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57년작 <잃어버린 청춘>부터 1994년작 <말미잘>까지 총 35

편의 작품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는 문화영화와 미완성 작품을 제외한 유현목 감독 연출 극영화 42편 가운데 데뷔작 <교차로>(1956)를 포함한 7편의 자료가 누락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40여 년에 걸친 주요 연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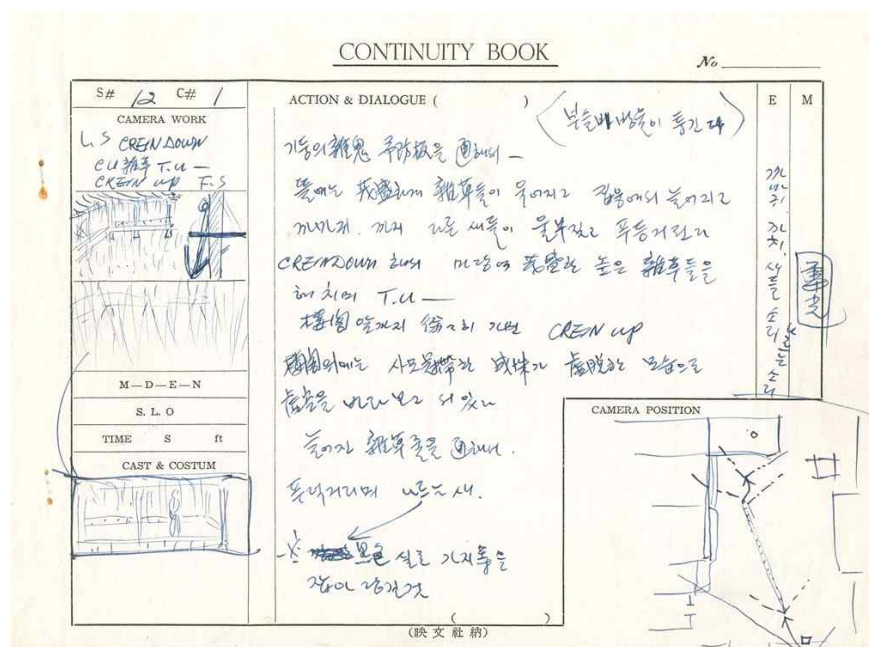


▲ <오발탄> 육필 시나리오 표지



▲ <오발탄> 대사대본(녹음대본) 표지

이번 컬렉션에는 완성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제작 과정의 기록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오발탄>(1961)의 여러 판본 시나리오에는 작품의 서사 구조가 구축되는 과정과 내용 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초고 육필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설희' 인물 설정을 둘러싼 초기 구상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촬영 후 녹음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오발탄> 대사대본(녹음대본)에는 이전 판본과 비교되는 수정 사항들이 남아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장면 정리 및 구성 조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김약국의 딸들> 콘티 일부(37쪽)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콘티 자료는 유현목 감독이 생전에 밝힌 “영상으로 사고한다”는 작업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그가 사용한 콘티뉴이티 양식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연출 계획이 기록돼 있다. 인물 동선, 화면 구도, 카메라 움직임 등의 사전 연출 설계가 컷 단위로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김약국의 딸들>(1963) 콘티에는 소품 배치와 장면 처리 방식 등 촬영 준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영화와 콘티를 병행해 확인하면 작품의 장면 구성과 연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구글 아트 앤 컬처 x 영상자료원, 유현목의 작품 세계를 담은 온라인 전시 3종 공개

영상자료원은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 공개와 함께 12월 15일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 & Culture)를 통해 “유현목 탄생 100주년 온라인 전시”를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영상자료원이 소장한 기록을 기반으로 유현목 감독의 작품 세계와 연출 과정을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온라인 전시회

<오발탄>의 시간들

한국영상자료원



온라인 전시회

유현목의 오프 스크린

한국영상자료원



온라인 전시회

포스터로 보는 유현목의
영화 세계

한국영상자료원

▲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전시

첫 번째 스토리 ‘포스터로 보는 유현목의 영화 세계: 작가주의부터 장르물까지, 한국영화 천의 얼굴’은 감독의 주요 작품을 포스터 중심으로 소개하는 전시이다. 그가 생전에 직접 뽑은 ‘자선(自選) 7선: 오발탄(1961), 김약국의 딸들(1963), 잉여인간(1964), 순교자(1965), 막차로 온 손님들(1967), 장마(1979), 사람의 아들(1980)’을 포함해 느와르(잃어버린 청춘, 1957), 사극(임궏정, 1961), 실험영화(춘몽, 1965), 공포영화(한, 1967), 코미디(공처가 삼대, 1967), 아동영화(수학여행, 1968), 멜로 치정극(여보, 1970) 등에 이르는 그의 40여 년에 걸친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포스터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두 번째 스토리 ‘유현목의 오프 스크린: ‘스크린 위’ 완벽한 세계를 위한 ‘스크린 너머’ 유현목의 연출 세계’는 유현목 감독의 영화 촬영 현장을 기록한 사진과 연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작품 제작 과정에서 감독이 설계한 미장센과 장면 연출 방식 등 촬영 준비와 실행 과정의 주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스토리 ‘<오발탄>의 시간들: 제작, 금지, 부활의 기록’은 유현목 감독의 대표작 <오발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동인제 방식으로 제작된 이 작품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불순 영화’로 분류되어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던 경위와, 1980년대 해금 이후 다시 상영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자료원이 소장한 자료와 기록을 통해 정리한다.

유현목 감독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영상자료원은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과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전시를 공개한다. 두 콘텐츠는 유현목 감독의 창작 과정과 작품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은 12월 15일부터 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유현목 탄생 100주년 온라인 전시”는 같은 날 구글 아트 앤 컬처 (artandculture.google.com) 내 한국영상자료원 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 이지윤 (02-3153-2029)

[참고자료] 관련 링크

1) [KMDb] 영화감독 유현목 연출 자료 컬렉션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view?colId=1283>

2) [구글 아트 앤 컬처] 유현목 탄생 100주년 온라인 전시

① 포스터로 보는 유현목의 영화 세계: 작가주의부터 장르물까지, 한국영화 천의 얼굴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TwWB7suA-fV-_A?hl=ko

② 유현목의 오프 스크린: ‘스크린 위’ 완벽한 세계를 위한 ‘스크린 너머’ 유현목의 연출 세계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lwXRITM-T4a9zA?hl=ko>

③ <오발탄>의 시간들: 제작, 금지, 부활의 기록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VgUx_mXt4JZA7A?hl=ko